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10. 6.(수) 총 4매 (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 당 자	• 과장 이재영, 사무관 이재호, 주무관 전상훈 • ☎ (044)200-5310, 5318, 5316	
보 도 일 시		2021년 10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오는 바닷새는 어떻게 이동할까?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바닷새에 위치추적기 부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0월부터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에 오는 바닷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로를 이용하는 주요 바닷새의 이동경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바닷새는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을 먹고 사는 생태계 먹이단계의 최상위 분류군으로서,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이용하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바닷새의 서식지 및 번식지로서의 국제적 중요도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구역: 서천·고창·신안·순천·보성갯벌(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는 그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의 34개소에서 바닷새 현황을 조사*하고, 관측자료를 확보해 왔다.

* 조사방법 : 강화도, 가로림만 등 주요갯벌, 바닷가 34개 정점에서 출현종, 개체수 목시조사

이번 바닷새 이동경로 조사는 이와는 별도로 바닷새의 이동경로, 서식지 이용패턴 등을 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철새 서식지로서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인근 습지보호지역의 세계유산구역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한 바닷새 행동권 분석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겨울철을 맞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구역에 가장 많이 오는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와 갈매기류(재갈매기, 갯가갈매기) 및 저어새 등 멸종 위기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주요 철새 및 멸종 위기종 등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종과 지역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 잠정)가 열리기까지 바닷새가 방문하는 주요 지자체·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을 포함한 세계유산구역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하며, 갯벌유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공청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유산 등재의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색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조사로 동아시아-대서양주 철새 이동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에 오는 바닷새의 국내 서식지 이용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바닷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국제협력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 추진개요

- (추진배경) '25년까지 중요 철새 서식지를 추가한 유산구역 확대를 조건으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21.7.26)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서 멸종위기 철새 서식지로서 한국의 갯벌 가치 인정

- (필요성) 유산구역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로(EAAF) 이용 바닷새(철새)의 서식지 이용 패턴 파악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에 도래하는 바닷새(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국내 서식지 활용 및 국내·외 이동양상 파악

- (사업예산/기간) 30백만원 / '21. 10. ~ 12.(3개월)

- (사업대상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 서천, 고창, 신안, 순천-보성 갯벌

- (조사방법)

- 포획 및 위치추적기 부착

구 분	세부사항	소요기간
포획 대상종 / 대상지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바닷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예찰 및 포획지역 선정 • 대상종 포획을 위한 사전작업* 실시 * 먹이살포 후 포획 대상종의 먹이 유인 정도 확인 	2주 내외
포획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 대상지역 각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후 조사 실시 * 법정보호종 포획 시, 문화재청 및 환경부 허가 必 	1~2주
포획방법 선정 / 대상종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장소 및 대상종에 따라 포획장비* 선정 * 케논넷, 미스트넷, 포충망 등 • 포획장비를 미리 설치하여 바닷새 경계 완화 	1~2일
포획 / 위치추적기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이 유인 후 포획장비 발사 및 포획 • 포획된 대상종의 건강상태 확인 후 선별개체에 위치추적기 부착 	1~2주

- 포획 가능 바닷새

포획 가능 종	포획 가능 시기				포획방법
	봄	여름	가을	겨울	
갈매기류(깡이갈매기, 재갈매기),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케논넷
검은머리물떼새					포충망, 미스트넷
저어새, 습새, 백로류(왜가리, 노랑부리백로 등)					
마도요류*(알락꼬리마도요, 마도요)					미스트넷
기러기류, 고니류, 두루미류					

* 대량포획이 불가능하며, 먹이유인/포획장소 선정 등 사전작업이 등 다른 종보다 장기간 소요

○ (위치추적 시스템 작동 원리)

- 바닷새에 부착한 단말기에서 GPS 좌표 획득, 수집된 위치정보 전송·저장
- 전용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확인, 위치정보 획득

항 목	사 양			
제 품 사 진				
제 품 명	WT-300 Pintail	WT-300 Mallard	WT-300 Egret	WT-300 Ibis
대 상 종	오리류	청둥오리 등	왜가리 등	저어새 등
무 게	22g	27g	30g	36g
배 터 리	리튬 이온 배터리, 태양 전지 패널			
추 적 가 능 범 위	전세계(북한제외)			
GPS 수신호 수신 및 데이터 전송 일수	일주일에 한번부터 30분에 한번 까지 요청가능			

□ ‘한국의 갯벌’ 도래 주요 겨울철새

		
청둥오리	재갈매기	저어새